

합평읍 중앙길 일방통행 존폐 논란

〈농협 합평군지부 사거리~읍교회〉

상가·주민 “상권 쇠락…불편 가중” 폐지 서명운동

군 “도로 폭 협소…현실적으로 확장이 우선” 맞서

합평읍 합평읍의 구도심을 관통하는 중앙길 일방통행 폐지를 놓고 인근 상가 주민들과 군청이 갈등을 빚고 있다. 상가 주민들은 구도심이 쇠락하면서 교통수요가 감소, 쌍방통행을 통해 다시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군청은 도로 폭이 협소해 확장한 뒤 이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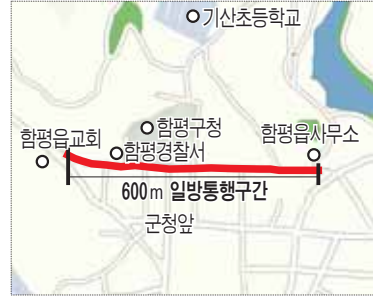
11일 합평군민영회 등에 따르면 중앙길 상가주민들이 일방통행 폐지서

명 운동을 펼쳐 최근 군청과 군의회, 경찰서 등 관련기관에 일방통행 폐지 서명서를 전달했다.

농협 합평군지부 앞 사거리~합평읍교회 사거리까지 연장 600여m의 이 길은 군청 등 관공서가 밀집해 한때 합평의 핵심상권이 자리잡혀 있었다.

그러나 인근 주거인구의 감소와 함께 중심상권이 외곽으로 이전되면서 100여 개의 간판이 즐비했던 거리 곳곳에는 빈 점포가 자리하고 있을 정

■ 일방통행 폐지 논란 구간



도로 급격히 쇠퇴했다.

그나마 문을 열고 있는 상가들도 영업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중앙로의 교통불편 해소를 그 대책으로 꼽았다.

지난 1990년 초반 일방통행으로 지정된 중앙로는 11개의 전봇대가 50m

간격으로 도로 가장자리 차선에 맞물려 있어 도로교통법 규정 도로폭 7.95m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버스 등 대형차량 양방향 교차가 불가능해 일방통행으로 지정된 것이다.

주민들은 이에 대해 중심지 외곽 도로망이 크게 좋아지면서 버스 등 대형차량이 중앙로로 진입할 가능성이 없는 데다 전봇대 지중화를 통해서라도 일방통행을 해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모(57)씨는 “일방통행 해제를 군민과의 대화 등에서 수차례 건의했지만 군청 등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넘어가자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곳 상가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토로했다.

문제는 전봇대 지중화에는 약 10억

여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이 가운데 절반을 한국전력 측이 부담한다고 해도 재정이 열악한 군으로서 5억원의 예산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게다가 지중화 박스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일부 상가부지가 편입될 수밖에 없어 주민과의 사전협의 절차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도로 폭이 협소해 한전의 전봇대를 지중화하는 것은 많은 예산 투입과 문제점이 많아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며 “일방통행 해제를 위해서는 도로 확장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합평=황은희기자 hwang@

신안군 임자도서

지구력 승마대회

15일부터 대광해수욕장

신안군 임자도 대광해수욕장에서 오는 15일부터 이틀간 제6회 국민생활체육 전국해변지구력승마대회가 열린다.

대광해수욕장의 백사장은 폭 400m, 길이 12km에 달하며, 해변 승마장소이자 말 마라톤 코스로 유명하며, 신안 임자도 승마 스포츠대회에 참가등록을 한 마필 200여두, 선수 및 동호인 5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번 대회에는 각 시도별 선수와 동호인이 참가해 열린 경쟁이 예상된다. 주요종목은 말 마라톤인 지구력경기(10·20·40km)다.

/신안=이선진기자 sslee@



콩 파종 소 쟁기질 한창

보성군 노동면 초전마을 들녘에서 지난 10일 농부가 콩 파종을 위해 소 쟁기질로 밭을 갈고 있다.

여수시 올해 5억8000만원 예산 절감

자체설계단 운영…주상동 해지마을 배수로 공사 등 284건 처리

여수시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자체설계단이 올해 5억8000여만원의 예산절감 실적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여수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자체설계단 운영 결과, 주상동 해지마을 배수로 설치공사 등 소규모주민숙원사업 284건을 처리하고 5억86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건설방재과와 읍·면 직원 등 19명으로 구성된 설계단 3개 반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마을

안길·농로·배수로 설치작업 등의 설계를 직접 맡아 용역비, 측량비 등을 절감하고 직원들 간 공동작업을 통해 기술업무 연찬으로 업무능력을 고취시키는 성과를 가져왔다.

시는 효과 증대를 위해 제1회 추경 예산에 반영된 63건의 사업에도 자체설계단을 운영하기로 하고 조사·측량·설계까지 직접 담당, 8000만원을 추가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관계부서 직원들이 예산절감을 위해 휴일도 반납한 채 업무에 매진할 정도로 열의가 넘친다”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주민과의 교감이 중요한 만큼 주민에게 다가가는 현장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2009년부터 자체설계단을 운영해왔으며, 지난 2012년에 4억3900만원을 절감한 바 있다.

/여수=김정희기자 chkim@

고흥~별교간 뱀골재 도로 뺨 뚫렸다

43억 들여 굴곡·겉경사로 개선사업 마쳐

고흥군은 11일 고흥군과 보성군 별교읍을 잇는 뱀골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을 마쳤다. 그동안 고흥~보성·별교읍을 경유하는 뱀골재 도로는 노폭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심한 굴곡과 급경사로 상시 교통체증 등 대형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었다.

이에 지난 2011년 고흥군과 보성군의 상생발전협약(MOU)을 체결하고 지역 공동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뱀골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을 지난 2011년 6월 착공해 43억원의 예산을 투입, 연장 940m 폭 9.5m의 2차선 도로를 이날 전면 개통하게 됐다.

고흥군의 오랜 숙원인 본 도로개도로 고흥에서 별교 순천 방향 차량과 고흥나들목을 이용하는 보성 별교읍 이용객들의 교통 편의와 접근성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고흥=주경희기자 gjju@

내년 해조류박람회 앞두고

완도군 글로벌마케팅 나서



김종식 군수 터키·미국 기업유치 적극 활동 ‘완도 알리기’ 동분서주

중요농업유산(GIAHS) 포럼에서 청산도 구들장논의 지하스 등 재 당위성을 설명하는 발표회를 갖고 곧바로 터키행 비행기에 올랐다. 지난달 15일부터는 일본 컷트미역 협회와 돛 협회의 총회에서 해조류 박람회 기업유치 설명회를 갖는 등 ‘완도 알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김 군수는 지하스 포럼과 슬로시티 총회에서는 직접 영어로 각각 세계 슬로길 1호,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호로 유명한 슬로우시티 청산도, 그리고 구들장논 등을 설명해 높은 관심을 받았다.

〈사진〉

2014년 해조류박람회를 앞두고 있는 완도군이 세계 속에 그 이름을 알리는 글로벌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11일 완도군에 따르면 김종식 완도군수는 지난 3일부터 이날까지 터키에서 열리는 2013년 국제슬로시티 시장총회에서는 대한민국 12개 슬로시티 지역을 대표해 청산도의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김 군수는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2일까지 유엔식량농업기관(FAO)이 일본에서 개최한 세계

이번 터키총회에는 세계 26개국 170개 슬로시티 인증도시 대표들이 참여했으며, 국내에서는 완도군을 비롯해 12개 슬로시티 인증 시군의 시장, 군수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슬로시티 청산도는 지난달 한국관광공사가 대한민국 최고의 가족체험여행지인 ‘2013 베스트 그곳’에 선정되기도 했다.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곡성군 등 7개 시·군 역사·전통문화 소개

‘지리산권 방문의 해 슬로건’ 공모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은 11일 “곡성을 비롯한 남원·장수·구례·하동·산청·함양 등 지리산권 7개 시군의 전통문화와 예술, 맛과 멋, 생태관광 자원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2014 지리산권 방문의 해’ 슬로건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모하는 슬로건은 ▲ 지리산권 7개 시군의 역사와 문화, 자연관광자원 등 지역특성을 함축적으로 표현, ▲대내외적으로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의 브랜드 이미지로 가능한 슬로건, ▲

일반인에게 친근감 있고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의 표현으로 하면 된다.

응모자격은 국내의 누구나 가능하다. 공모기간은 오는 12일부터 7월12일까지로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에서 이메일(kn9170008@korea.kr) 또는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우수작은 7월 중 발표되며, 최우수상(100만원) 1명과 우수상(50만원) 1명, 장려상(25만원) 2명을 시상한다.

/곡성=김계경기자 kjkim@

3人3色 색깔이 살아있는

TV조선 뉴스쇼

완

매주 월~금 밤 9시 40분 방송

대한민국 어디서나 채널 19번 TV조선

박은주 조선일보 문화부장 최희준 TV조선 취재에디터 김미선 TV조선 정치부 기자